정교회주보

제2580호
2026년 6월 7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사도 바울로의 마케도니아 영상을 묘사한 모자이크. 바울로는 이를 계기로 유럽 선교의 길을 열게 된다.

마태오 제 1 주일 (모든 성인들의 주일)

성 테오도토스 주교순교자

(제8조 • 조과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 모든 성인들 찬양송 …… 269
- 성당 찬양송
- 모든 성인들 시기송 …… 269
- 사도경 : 히브리 11,33~12,2 … 269
- 복음경 : 마태오 10,32-33; 37-38; 19,27-30 …… 108
- 영성체성혈송 …… 27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22회] 성령께서 이끄신 새로운 길

사도 바울로와 그 일행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비티니아로 가려 했을 때도 예수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사도행전 16,6-7)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밤, 바울로는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하고 간청한 것이다.(사도행전 16,9)

바울로는 이를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듣고 곧바로 길을 나섰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한 이 결단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파되는 거룩한 새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이 막히고 좌절될 때마다, 나의 계획보다 하느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함을 일깨워 준다.

모든 것은 성인들처럼 주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

오순절 다음 주일에 맞이하는 모든 성인들의 주일에는 인생의 경기장에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어려움과 희생을 이겨낸 승리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승리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겪은 인생의 고난은 이루 헤아릴 수없이 많았고, 하나하나가 모두 고통스러웠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정의를 실천하였고 …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껐고 …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달게 받았습니다. …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히브리 11,33-37)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던 약 300년 동안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자가 되었고,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다가 평화롭게 잠들어 고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이나 광야에는 기도와 금식과 고행을 평생 실천한 거룩한 수도자가 있었고, 하느님의 은총과 기도를 통해 대가를 받지 않고 병자들을 낫게 한 자선치료자도 있었고, 사도들의 올바른 믿음과 거룩한 가르침을 교회에 전해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거룩한 성인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생애를 모두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히브리 12,1)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1고린토 9,25)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이고,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느님의 옥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히브리 12,2)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을 닮고 그분과 함께 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프가 박사의 점수 (2)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지난 주보에 이어서)

1952년 어느 아침, 아프가 박사는 이런 불확실성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종이 몇 장과 연필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혼자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텅 빈 백지 위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간단한 5가지 기준의 검사를 고안해낸 것이다. 그것은 심장 박동수, 호흡, 근육의 긴장도, 자극에 대한 반사 반응, 피부색 등 다섯 가지 매우 중요한 징후를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아프가 점수'라고 칭했다.

당시 의료계는 그녀가 만들어낸 방법을 단지 받아들인 데 그치지 않고 열렬히 환영하였다. 10년 안에 미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아프가 박사의 평가 방식을 채택하였다. 의사들과 의료진은 도움을 요청하는 아기의 신호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언제 의료적 개입을 해야 하는지, 언제 더욱 필사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신생아 사망률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프가 점수'를 시행한 결과 고위험군의 사망률이 약 40~50퍼센트 감소하였다. 이전에는 회복이나 소생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져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도록 방치되었던 아기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아프가 점수'는 의사들에게 생명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허가증과도 같았다.

아프가 박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공중보건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였고, 모자(母子) 보건을 위한 비영리 재단에서 쉼 없이 일했으며,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녔다. 그녀는 큰 소리를 내기보다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여러 장애물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

었고, 어떤 주제나 상황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어디에서든 가장 의미 있는 인물로 존재하였다.

한번은 자신을 원하지 않던 의학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그녀는 익숙하고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전설이 된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강인함을 설명하였다.

"여성은 티백(teabag, 차를 우려내기 위한 찻잎을 담아두는 망)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여성이 얼마나 강한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아프가 박사는 197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업적은 공기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필수적인 것으로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 곳곳에 살아 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약 2초마다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나 숨을 쉰다. 그리고 그 순간 의사나 산파는 조용히 점수를 매긴다.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프가 점수'를 확인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사용하면서 말이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목요일(11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셔서 오래도록 양 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6월 11일(목)
성 바르톨로메오스 사도
성 바르나바 사도
중국의 순교자들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영성의 샘터

최선을 다하라

어느 사부가 조언했다.
"침묵과 고요를 사랑하라. 많은 관심에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 하느님의 것에 생각을 집중하라.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사탄이 그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알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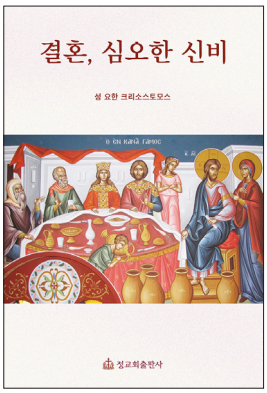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안식 4주기 추도식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안식 4주기를 맞아 가평 수도원에서 6월 12일(금) 저녁 8시부터 철야예배(조과, 만과, 성찬예배) 및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참례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6월 14일(주일)에는 각 지역 성당에서 성찬예배에 이어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신간 소개

결혼, 심오한 신비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지음 | 박용범 요한 옮김 | 정교회출판사 | 224쪽 | 12,000원



초대 교회의 위대한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의 설교에서 발췌한 결혼과 가정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결혼과 가정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의 결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축일 금식 시작

내일(8일)부터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축일 금식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는 수, 금요일을 제외하고 생선이 허용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여 사도들의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서울 성당 세계 음식 축제를 마치고

지난 오순절 주일(5월 31일)에 열렸던 '세계 음식 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다채로운 고유 음식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주변 이웃들의 방문과 참여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축제 준비와 운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전 준비부터 행사 후 정리까지 자발적인 마음으로 애써준 신데즈모스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